

## 한영 과거-비과거 분할 시점 대조 분석

-세종 한영 병렬 말뭉치에 기반하여-

조은경

(서강대학교 교수)

### <Abstract>

**Jo, Eun-Kyoung. 2019. A contrastive analysis of past and non-past cut-off points in Korean and English. *Korean Semantics*, 64.** This paper aims at showing how past and non-past cut-off points in Korean and English are corresponding to each other in terms of linguistic generalisation and linguistic diversity with investigating semantic functions of cut-off points of past and non-past through analysing Korean English sentence pairs which are extracted from Korean and English parallel corpus. It can b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pproached that the functions of the cut-off points of the temporal markers take roles in certain ways by examining how they are actually appeared in the sentence pairs of Korean and English expressing the same meaning. The majority of ‘-eot-’ is corresponding to simple past in English. But there are another various interesting usage patterns. For instance, ‘-eot-ue-myeon’ is to past modal expressions in English, ‘-eo ji-eot-’ and ‘-gei doi-eot-’ are to present perfect in English, ‘-eo/-go yiss-eot-’ and ‘-doen joong-yi-eot-’ are to past progressive in English. Korean temporal marker ‘-eot-’ tends to have certain patterns of forms(periphrastic constructions) when they correspond to certain English tense and modal categories. The majority of ‘-geit-/-l geot-’ could not be said they are corresponding to simple future tense. ‘-geit-/-l geot-’ tend to correspond to past and present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926129)

modals in English and they are corresponding to from tense markers such as 'will' and 'be going to' to lexical verbs such as 'expect' and 'wish'. It can be said that Korean future temporal markers '-geit-' and '-l geot-' show the spectrum over the grammatical categories and semantic categories.

핵심어: 병렬 말뭉치(parallel corpus), 대조 분석(comparative analysis), 범언어적 일반성(linguistic generalisation; cross-linguistic variation), 개별언어 특성(linguistic diversity), 분할 시점(cut-off points), 시점 표지(temporal markers), '-었(-eot-)', '-겠(-geit-)', '-르 것(-l geot)', 우언적 구성(periphrastic construction)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와 영어 병렬 말뭉치에 기반하여 같은 뜻을 표현하는 과거-비과거 시점 표지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언어 특성인 분할 시점의 측면에서 과거와 비과거 표지가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보이고, 개별 언어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 쌍인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한국어와 영어 대응 문장을 보면, 한국어의 과거-미래 시점 표지가 영어의 과거-미래 시점 표지에 그대로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의 과거 표지가 영어의 미래 표지에 대응이 되는 경우와 한국어의 미래 표지가 영어의 과거 표지에 대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점 표지가 시제적 기능을 충실히 보이는 경우와 시제적 기능이라기보다 양태적 기능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같은 뜻을 표현하는 다른 언어를 대조하여 볼 때 그 표지의 차이 양상이 잘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차이를 계량적으로도 드러낼 수 있다.

분할 시점(cut-off point)은 Comrie(1985:87)에 쓰인 메타 용어로 연속적인 속성을 가진 시간을 문법 표지에 의해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 등으로, 어휘 표지에 의해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등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언어 보편적 속성을 말한다. 분할 시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을 했어요'는 과거 사실이나 완료적 의미를 표현하고,

‘~을 하겠어요’는 미래 일에 대한 의지나 어떤 일에 대한 추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한 가지 뜻이 전달된다고 할 때에도 언어마다 분할 시점의 형식이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를테면, 식당에서 있을 법한 발화로 ‘무엇을 드시겠냐’(미래형;비과거형), ‘뭐 먹을까요?’(미래형;비과거형)라는 물음에 대해, 한국어는 과거 형식으로 쓰이는 일이 없지만, 영어는 ‘What would you like to have?’(과거형), ‘What shall we have?’(미래형/비과거형)이 쓰인다. 이러한 분할 시점의 기능적 차이는 표지를 기준으로 언어적 기술이 나뉘게 하고, 그 차이나는 바에 따른 개념 기술로 이어지게 한다. 다시 말해, 쓰임에 따라 뜻의 차이가 있는 ‘-겠-’은 시제적 기능과 양태적 기능, 서법적 기능이 기술되게 하고, 이것이 또 그 기능들의 연계성을 말하게 하며 그 특성에 따라 개별 언어적 차이점과 언어적 공통점을 기술하게 한다.

상, 시제, 서법, 양태 등의 범주 구분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배타적인 변별의 문제라기보다 개념 정의와 구분의 문제로 정리되었다(박진호 2011, 목정수 2015:52). 시제 체계만도 보더라도 과거-현재-미래의 삼분 체계, 과거-비과거의 이분 체계, 과거-현재의 이분 체계, 완료-비완료의 체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문숙영 2009:23). Lee(2015:232)는 한국어의 시제 체계가 일반적으로 과거-비과거의 이분 체계라고 간주된다고 하면서도, ‘과거 시제는 완료상(perfective aspect)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현재 시제는 미완료상(imperfective aspect)과 관련되고, 미래 시제는 추측(presumption), 짐작(conjecture), 의도(intention), 의지(volition)의 양태와 관련된다’고 하여, ‘시제’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메타적인 뜻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도 시제 표지가 가진 메타적 뜻을 빌어, 문법적 시제라기보다는 과거-비과거 표지로서 ‘-었-’, ‘-겠-’을 과거-비과거라는 단순한 분할 시점으로 보고 말뭉치에서 추출한 한국어와 영어 대응 문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어의 과거 표지가 영어로는 얼마나 과거 일로 표현되는지 혹은 얼마나 완료적인 뜻으로 표현되는지를 볼 수 있고, 한국어의 미래 표지가 영어로는 얼마나 미래 일로 표현되는지 혹은 얼마나 추정의 뜻으로 표현되는지를 계량적으로 볼 수 있으며, 분할시점으로서 과거-비과거 표지가 가진 다양한 의미 기능을 언어 대조를 통해 형태적, 의미적 대응 양상을 살필 수 있다.

## 2. 연구 범위와 자료 특성

이 연구는 같은 뜻을 표현하는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의 대응 쌍을 추출할 수 있는 세종 한영 병렬 말뭉치를 자료로 삼았다. 언어 간 대조 연구에서 병렬 말뭉치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황은하(2017)에서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는데, 특히 ‘대응어 주석말뭉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전보다 더 정확하고 다양한 대응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송상현(2015)는 ‘-었.’에 대응되는 영어 시제 형식을 세종병렬말뭉치를 기반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과거 시제가 얼마나 다양한 범주의 영어 시제에 해당되는지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선희(2011)는 한국어의 ‘-었.’에 대응되는 영어의 시제 불일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즉, 같은 뜻을 표현하는 개별 언어의 형식적 차이가 언어 형식의 기능과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치가 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언어 유형론 연구에서 병렬 텍스트는 언어적 차이와 일반성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Van der Auwera et al.(2005), Cysouw et al.(2007), Daniel.(2013)).

### 2.1. 세종 병렬 말뭉치의 특성

세종 한영 병렬 말뭉치는 구성 면에서 수집 가능성과 저작권 문제로 인해 다소 제한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성된 텍스트는 영한 소설의 영어 원본과 한글 번역문, 국제교류재단의 소식지로 영한 대역문, 주한미국대사의 연설문, 과거 대통령들의 연설문이나 축사 등의 대역문, 영어 교재류 등으로 다양한 장르의 것들로 구성되었으며 연설문이나 생활 영어 교재가 다수 포함됨으로써 구어적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종 병렬 말뭉치 구축 지침의 어디에도 말뭉치의 한정된 활용 용도나 구체적인 활용 목적, 균형 말뭉치로서의 범용적 구축 목표가 언급된 바는 없지만, 다양한 장르와 사용역이 고려된 말뭉치들로 구성된 점을 볼 때 언어 현상 설명을 위한 자료로서의 균형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병렬 말뭉치는 언어 분석 수준 면에서 원시 말뭉치와 형태 분석 말뭉치 두 종류가 있다. 연구 자료로 삼은 것은 형태 분석 말뭉치이다. 이는 과거 표지 이형태인 ‘-았/었/셨/셨-’과 미래 표지인 ‘-겠-’, ‘-르 것’을 정확하고 쉽게 추출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모든 세종 형태 분석 말뭉치가 그러하듯이 현재 표지로 다뤄지는 영형태는 말뭉치 상에 드러나지 않고 ‘-ㄴ/-는’은 모두 관형형 어미로 주석되어 있기 때문에 추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현재를 포함한 비과거 범주 표지 전체라기보다 미래 표지에 제한하여 살피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영 병렬 말뭉치는 한국어 파일, 영어 파일, 문장 대응 아이디 파일의 세 가지 파일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89개 쌍이다. 문장 대응 쌍을 맺어둔 문장 아이디 쌍에 기반하여 한국어 문장에 대응하는 영어 문장을 추출하여 대응 문장 쌍을 만들 수 있다.<sup>1)</sup> 그런데 이때 병렬 말뭉치에서 한국어와 영어 대응 관계는 문장이 1:1의 대응이 아닐 수 있다. 여러 문장과 여러 문장이 대응되거나(\*\*) 대응 문장이 없이 의역되어 들어가거나 없는(0:1, 1:0)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응 관계에 있는 문장 간의 사건 대응이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사건의 시간성을 결정하는 시제 기능도 대조가 어렵다. 이 때문에 1:1의 대응 관계에 있는 문장만 추출하였고, 그 대응에 따라 한국어 시점 표지에 대응하는 영어 분할 시점 형식을 대조하여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장아이디]한국어 문장: [1.1.p9.s1] 세계/NNG 는/JX 이제/MAG 대립/NNG 과/JC 갈등/NNG 의/JKG 20/SN 세기/NNB 를/JKO 뒤/NNG 로/JKB 하/VV 고/EC 화해/NNG 와/JC 협력/NNG 을/JKO 통하/VV ㄴ /ETM 공동/NNG 번영/NNG 의/JKG 뉴밀레니엄/NNG 의/JKG 시대/NNG 로/JKB **접어들/VV** **있/EP** **습니다/EF** /SF

[문장아이디]영어 문장: [1.1.p8.s1] As/IN the/DT 20th/JJ century/NN which/WDT was/VBD plagued/VBN with/IN confrontation/NN and/CC conflicts/NNS is/VBZ left/VBN behind/RB ./, the/DT new/JJ millennium/NN **is/VBZ being/VBG greeted/VBN** with/IN fresh/JJ hope/NN for/IN conciliation/NN ./, cooperation/NN and/CC common/JJ prosperity/NN ./.

1) 세종 병렬 말뭉치 형태소 분석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의 깃허브에서 프로그램 파일을 활용하여 문장 쌍 파일을 만들 수 있다.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 언어 현상 추출에 유용할 수 있다. 상세한 안내는 아래의 깃허브 사이트를 참고.

<https://github.com/HanInformatics/SejongParaConc>

그런데 위에서처럼 형태소 분석된 품사 표지를 같이 제시하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이후 제시하는 예문은 품사 표지를 떼고 제시할 것이다.

## 2.1. 용례 조건과 한국어 영어 대응 문장

연구 대상 범위 측면에서 ‘-았-’, ‘-겠-’이라는 표지만으로 한국어-영어를 비교하기에는 한국어 표지의 기능 폭이 너무 크다. ‘-았-’, ‘-겠-’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상, 양태, 시제 기능을 고루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어 대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분할 시점으로서 한국어 시점 표현 용례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말뭉치에서 추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문장에 과거 표지나 미래 표지가 있으면서 분할 시점을 표현하는 시간 부사가 있다면 이는 과거-비과거 분할 시점 표현에 보다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응 문장을 추출할 때에, 한국어 ‘-았-’, ‘-겠-’이 있는 모든 문장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았-’, ‘-겠-’과 시간 부사가 같이 쓰인 한국어 문장을 추출한 다음 여기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을 뽑는다면, 비교적 한국어 기준의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대조가 더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 병렬 말뭉치에 출현한 다양한 시간 부사들 중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를 가르는 의미가 있는 시점 부사로 용례 추출에 활용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곧/곧장, 이제, 이미, 지금, 현재

위의 시간 부사 외에도 여러 부사들이 있겠지만 한 문장 안에서 ‘-았-’, ‘-겠-’과 함께 쓰인 부사들 중에서 시점의 기능을 하는 것을 추려낸 것이다<sup>2)</sup>. 그리하여 ‘-았-’ 혹은 ‘-겠-’과 함께 위의 시간 부사가 하나의 문장 안에 있어야 하는

2) 모든 시간 부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점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제한하였다. 부사에 해당 하는 세종형태분석 품사 표지는 MAG이다. 그러나 ‘어제’, ‘오늘’, ‘내일’ 등은 명사 통용 부사로 NNG로 태깅된 경우도 상당 수 있기에 이들을 포함하였다. 또, ‘곧장’을 명확한 시점 부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곧’과 바뀌 쓸 수 있는 일이 많고, ‘매우’, ‘참’, ‘자주’ 등에 비해서는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시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저께’는 명백한 시점 부사이지만, 세종 병렬 말뭉치에서 출현하지 않은 것이기에 이 목록에는 없다. 그래서 세종 병렬 말뭉치에서 과거, 비과거 시점 표지와 함께 출현하고 품사 표지가 MAG이면서 시점 기능을 띤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건으로 추출된 한국어 문장과 영어 대응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You **told** me yesterday.

지금 그 일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나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I'm **calling** to find out how far along you are with the work.

이제 개각의 단행과 더불어 국정 제 2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With the recent Cabinet reshuffle, my Administration **has entered** the second phase.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 **would** now **like to** discuss our relations with North Korea.

곧장 호텔로 가지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go straight to your hotel?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어렵겠어요.  
Tomorrow **will** be even worse than today.

이런 식으로 추출된 한영 대응 문장 쌍의 수는 414개이다. 요컨대, 대응 문장을 추출할 때에, 한국어와 영어가 1:1이 대응되는 문장을 추출하되, 한 문장에서 ‘-았-’, ‘-겠-/-르겠’과 함께 시간 부사가 같이 쓰인 한국어 문장에 대응하는 영어 문장만을 추출함으로써 한국어 기준으로 과거-비과거 분할 시점 기능에 비교적 충실한 영어 대응 문장이 추출되도록 하였다.

### 3. 한국어-영어 시점 표현 대응 양상

#### 3.1. 말뭉치 계량에 의한 분포 대조

한국어의 ‘-겠-’을 미래 시제라기보다 양태 표지로 보듯이, 영어의 ‘will’도 미래 표지라기보다 양태 표지로 현재형이라 보기도 한다(허용, 김선정 2013:293). ‘will’이 미래형이고 ‘would’는 과거형, ‘can’은 현재형, ‘could’는 과거형이라는 점은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표현적 측면에서 ‘-겠-’이나 ‘will’이 현재의 일보다 미래의 일을 표현하려고 할 때 쓰인다는 점은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 ‘-았-’도 과거 시제라기보다 완료의 상적 표지로 보는 일이 많지만 과거의 일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will’과 ‘shall’은 미래 시점 범주의 표지로, ‘can’, ‘may’는 현재 시점 범주의 표지로 보았다.

자연어의 형태 단어와 의미가 1:1의 대응이 되지 않듯이 문장 대응 쌍에서의 한국어 영어의 시점 표지도 1:1의 대응이 어렵다. 마찬가지로 형태 단위에 있어서도 한국어 동사에 결합한 ‘-았-’이 영어의 ‘-ed’에 언제나 잘 대응된다기보다는 ‘was ~ing’ 같은 과거 진행형이나 ‘would’, ‘could’와 같은 조동사 과거형에 대응되는 일도 있다. 앞서 밝혔듯이 여기서 시점이나 시제라는 용어는 상이나 양태 범주와 구분이 되는 시제가 아니라 양태나 상 등을 포괄하는 형식 범주로서 메타적인 뜻으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시점을 과거-비과거 분할 시점으로 나누어 영어 문장을 추출하였을 때 영어의 대응 표지 즉, 시제, 상, 양태의 범주에 대응되는 양상을 병렬 말뭉치의 문장 대응 쌍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표 1>은 영어의 시점 형식에 해당하는 언어 표지의 목록다. 영어의 시점 형식은 한국어에 비해 언어 표지에 따라 더 잘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들이 한국어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표 2>는 한국어 시점 표지, ‘-았-’, ‘-겠-’, ‘-르 것’에 대응되는 영어 시점 형식의 대응 빈도표이다.



<표 1> 영어 시점 형식-언어 표지

영어 시점	언어 표지
past-modal	would like/love to~, would/should have pp
past perfect	had pp
past	past form(regular form; ~ed, irregular form, passive form:was/were pp)
past progressive	was/were ~ing
present progressive	am/is/are ~ing
present perfect	have/has pp
present	present form, present passive(is/are pp)
present modal	can, must, may
future	will/shall, is going to
future modal	will/shall have pp
none	대응 없음
비시점 대응	complementiser: that

<표 2> 한국어-영어 시점 대응 분포표

	past modal	past perfect	past simple	past progressive	present progressive	present perfect	present	present modal	future	future modal	none	complementiser	
있	9	6	141	6	8	57	47	3	0	3	2	0	282
졌, 르것	25	0	3	0	0	0	22	22	55	0	4	1	132
졌	20	0	2	0	0	0	17	16	34	0	2	0	91
르것	5	0	1	0	0	0	5	6	21	0	2	1	41

한국어 ‘-있-’은 영어의 다양한 형식 표지에 대응되어 쓰였다. 가장 많이 대응된 것은 단순 과거이긴 하지만, 미래-현재-과거형 양태를 비롯하여 현재 진행

형, 과거 진행형, 단순 과거와 대과거형에까지 아우르는 대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대응은 일정한 형태적 구성을 띠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국어 ‘-겠-’, ‘-르 것’은 영어의 미래 시제 형식뿐만 아니라 양태적 뜻이 있는 여러 표현에 대응되어 쓰였다. 즉, ‘will’, ‘shall’, ‘be going to~’, ‘can’, ‘must’, ‘may’, ‘should’, ‘would like to~’ 뿐만 아니라 ‘expect’, ‘wish’, ‘hope’, ‘let me ~’ 등에 대응되었다.

### 3.2. ‘-았-’과 영어 시점 표지의 대조

한국어 과거 표지 ‘-았-’이 어떻게 영어의 단순 과거, 대과거, 양태를 표현하는 형식에 대응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았-’이 가진 의미 기능을 언어 대조를 통해 구해볼 수 있다.

#### 3.2.1. 단순 과거 (past simple)

‘-았-’이 단순 과거에 대응되는 일은 가장 많은 용례가 있었고, 명백한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표 1>을 보면, 이 경우의 상대 빈도는 141/282로 과거 시제 표지간 대응이 50%를 차지함을 보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sup>3)</sup>. 대개는 ‘어제, 그저께, 아까’ 등 과거 시점을 표현하는 부사와 같이 쓰여서 (1~3)에서처럼 명백한 과거 사건임을 드러낸다.

(1)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You **told** me yesterday.

(2) 그저께 도착하셨지요?

---

3) 시제 표지와 부사가 한 문장 안에 공기한 경우를 추출한 것이기에 (4)에서와 같이 시간 부사가 동사 시제에 걸린 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동사 시점은 한국어와 영어 간에 과거 시점으로 대응이 되었다.

(4) 오늘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It was supposed to be from today.

You just **arrived** the day before yesterday, didn't you?

(3) 아니, 아까 왜 단체 사진 찍을 때 같이 안찍으셨어요?

Oh, David, when we took the group picture why **didn't** you join us?.

### 3.2.2. 대과거 (past perfect)

‘-었-’은 ‘이미’와 같은 지난 과거의 뜻을 가진 시간 부사와 함께 쓰여서, 영어의 대과거와 같은, 지난 시점에서 과거 사태를 표현하는 기능을 돕는다. 이러한 ‘-었-’은 영어 대과거에 대응되는 경향이 있다. ‘-었-’으로 부족한 대과거 기능을 ‘이미’가 채우며, 영문법 시제에 있는 대과거형의 기능인 과거 완료(past perfect)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4)에서 영어 대과거 ‘had gone’은 한국어에서 그냥 ‘보이지 않았다’보다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혹은 ‘보이지 않았었다’가 되어야 그 뜻이 산다. ‘이미’가 ‘-었-’의 일을 더 과거로, ‘-었었-’이 ‘-었-’의 일을 더 과거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5)에서는 ‘had been foreseen’은, 영어에 ‘already’가 쓰이지 않았듯이, ‘이미’ 없이 ‘예견되었던 것이었다’가 (5’)처럼 ‘예견되었었다’로 바꿔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없이 ‘예견되었다’라고만으로는 대응되지 않는다. ‘-었-’이 ‘이미’와 같이 쓰이거나 ‘-었었-’으로 쓰여야 ‘had been foreseen’에 잘 대응이 된다. (6)에서 ‘had gone’도 ‘진척되었다’, ‘진척을 보았다’보다는 ‘이미’가 같이 쓰일 때 잘 대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었-’과 ‘이미’의 공기는 한국어 대과거<sup>4)</sup> 기능과 관련이 된다. ‘이미 ~ -었-’이 같이 쓰인 (4-6)은 그 아래(4’~6’)에서와 같이 ‘-었었-’으로 바꾸어도 유사한 뜻이 된다.

(4) 세이디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Sadie **had gone**.

(5) 실제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Actually,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had been foreseen**.

4) 영어의 대과거가 과거 시점에서 과거를 표현할 때 즉, 이미 일어난 사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미’와 ‘-었-’의 공기는 ‘-었었-’으로 표현되는 단절 과거(박진호:2016)와도 관련된다.

(6) 최근의 실험에서 이미 저는 상당한 진척을 보았습니다.

I **had gone** far along the road to success in recent experiments.

(4) 세이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다.

(5) 실제 한국 경제의 위기는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6') 최근의 실험에서 저는 상당한 진척을 보았었습니다.

### 3.2.3. 현재형 (present)

‘-었-’이 영어의 현재형 시점에 대응되면서 과거의 사태와 다른 현재의 사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때 (8)-(10)의 한국어 예문이 보이듯이 현재 시점 부사 ‘이제’와 ‘지금’의 도움을 받고 있다.

(8) 사업 개시가 이제 일주일 남았군요.

It's only a week until you're open for business.

(9) 대부분이 지금 휴가를 떠났거든요.

Most of them **are** away on vacation right now.

(10) 세계 곳곳의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Human rights violations wherever in the world, **are now** considered a legitimated concern of the internation community.

영어에서도 (9-10)에는 ‘right now’, ‘now’가 쓰였는데, 현재 시제를 쓰면서도 현재 시점 부사로 현재 시점을 더 강조한다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제 형식으로만 본다면, 영어 현재 시제가 현재의 사태에 중점을 두게 한다면, 한국어의 ‘-었-’은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사태를 더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 3.2.4. 과거형 양태 (past modal)

‘-었-’이 영어의 과거형 양태 조동사에 대응되면서, 바람이나 희망이라는 미래의 뜻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었으면 하-’의 형식으로 쓰이고 미래형 시점 부사어와 같이 쓰였다. 이때의 ‘-었-’의 기능은 시제라기보다 양태일 것이다. 영어 대응 문장을 보면,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 시점 부사어와 과거형 양태 조동사가 같이 쓰였다.

- (10) 김선생님, 가능하다면 내일 아침에 좀 **봬**었으면 합니다.

Mr. Kim, I'd like to see you tomorrow morning, if possible.

- (11) 브라운씨, 제 아내와 제가 오늘 저녁 두 분 내외분께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렸으면 하는데요.

Mr. Brown, my wife and I **would love to** have you and Mrs. Brown over for dinner tonight.

- (12) 가능하다면 오늘 서울행 비행기표를 **샀**으면 합니다.

I'd like to get a flight to Seoul today, if possible.

위의 한국어에서 ‘-었-’을 쓰지 않는다면, ‘~었으면 하다’는 다음의 (10’~12’)와 같이 ‘~으면 좋겠다’로 바꾸어볼 수 있다. 즉, ‘-었-’은 ‘-었으면 하-’의 구성으로 ‘would like/love to’와 같은 바람과 겸양의 가정법 과거(subjunctive past)의 쓰임으로 볼 수 있다.

- (10’) 김선생님, 가능하다면 내일 아침에 좀 **봬**겠습니다.

- (11’) 브라운씨, 제 아내와 제가 오늘 저녁 두 분 내외분께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면 **좋겠는**요.

- (12’) 가능하다면 오늘 서울행 비행기표를 사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었으면 하다’의 ‘-었-’은 미래형 표지 ‘-겠-’이 영어의 과거형 양태 조동사에 대응되는 때(후술할 3.3.4 절, (42)~(46))와 의미적 기능이 유사하다.

### 3.2.5. 현재형 양태 (present modal)

‘-었-’이 영어의 현재 조동사 ‘can’에 대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 (13~15), ‘-게 되었-’, ‘-어 지었-’의 형식으로 시간 부사 ‘이제’가 같이 쓰이면서 과거의 사태와 다른 현재의 사태로의 변화를 표현한다. 이때 ‘이제’는 ‘지금’과 비슷한 뜻으로 과거와는 다른 현재 시점을 뜻하며, 대응된 영어 문장(13, 14)에도 ‘now’가 쓰였다. (15)에서 ‘After september 11’은 ‘now’의 의미를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지금 가능하다는 것은 상태 변화를 뜻한다. 만약 (13, 14)에서 ‘can’에 대응되는 것이 ‘-었-’을 제외한 ‘-르 수 있-’이 기만 하여서 (13’, 14’)와 같이 ‘-었-’이 쓰이지 않는다면, ‘can’이 가진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와 다른 상태 변화를 뜻하는 ‘-될/-질 것이다’로 쓸 때 ‘can’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

(13) ... 한미 양국은 **이제** 이익뿐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항구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our two nations, sharing not just interests but values as well, **can now** move ahead to forge a lasting partnership.

(13')... 한미 양국은 **이제** 이익뿐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항구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되다/될 것이다.

(14) **이제** 결국 런던으로 여행 갈 수 있게 되었네.

Now we **can** finally take that trip to London.

(14') **이제** 결국 런던으로 여행 갈 수 있게 \*되네/될 것이다.

(15) 테러 이후 테러가 **이제** 우리 삶의 방식에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

After September 11, there **can** be no doubt that terrorism poses a real and powerful threat to our way of life.

(15') 테러 이후 테러가 **이제** 우리 삶의 방식에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 3.2.6. 미래형 양태 (future modal)

‘-었-’이 영어의 미래형 양태 조동사에 대응되는 용례(16,17)를 보면, 현재형 양태에 대응되었던 경우와 유사하게 ‘이제’와 함께 쓰이면서 ‘-게 되-’, ‘-어 지-’의 형식으로 쓰이면서 과거의 사태와 다른 현재의 사태를 표현한다. 이때 영어의 ‘will’도 미래의 일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앞으로 지속의 뜻을 가지며, ‘from now on’, ‘now’와 같은 시간 부사와 같이 쓰였다.

(16) 이제 돈이 없어서 .... 못 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

From now on, no family **will have to** skip meals, ...

(17) 이제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도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w, all citizens, including those getting by with less than the minimum level of income, **will be provided** institutional guarantees of education, medical care, and other basic requirements of a decent living.

그런데 영어의 ‘will’은 변화되었기보다 변화될 미래 시점을 표현하기에, 사태의 변화가 현재 시점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완료될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한국어 대응문을 보면, 3.2.5에서 영어의 ‘can’에 대응된 경우와 유사한 형식인 ‘~게 되었-’으로 쓰였다. 따라서 문장이 뜻하는 바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시점 대응 형식에 따라 즉, ‘can’에 대응된 경우는 상태의 변화로 ‘will’에 대응된 경우는 상태의 지속으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

3.2.4~3.2.6.에서 ‘-었-’이 우연적 구성을 이루면서 비과거 시점 부사의 도움을 받아 영어의 과거형 양태, 현재형 양태, 미래형 양태에 대응된 경우를 보았다. 다시 말해 ‘-었-’은 ‘이제’, ‘내일’, ‘곧’ 등과 함께 ‘-게 되었-’, ‘-어 지었-’ 등의 구성으로 쓰여, 과거 사태를 표현하기보다 과거와 달리 현재 변화된 사태를 표현함을 보았다.

### 3.2.7. 과거 진행형 (past progressive)

‘-었-’이 ‘-고 있었-’, ‘-던 중이었-’와 같은 우연적 구성을 이루며 영어의 과거 진행형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어의 ‘-고 있다’, ‘~ 중이다’가 어떤 사태의 진행을 표현하며 여기에 ‘-었-’이 결합함으로써 과거 진행을 뜻한다. 여기에 대응되는 영어의 과거 진행형은 그야말로 한국어와 투명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18) 지금 막 너에게 전화하려던 중이었어.

I **was just thinking** of calling you.

(19) 그녀는 지금 막 새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She **was trying** on a new hat.

(20) 남자들은 이미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Already the men had shouldered their staves and **were making** for the place.

### 3.2.8. 현재 진행형 (present progressive)

‘-었-’이 영어 현재 진행형에 대응된 (21~23)을 보면 한국어 ‘-었-’은 어떤 상태 변화의 완료를 표현하고, 영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됨으로써 변화되고 있는 사태를 보다 강조하는 것 같다.

(21) 세계는 이제 대립과 갈등의 세기를 뒤로 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뉴밀레니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As the 20th century which was plagued with confrontation and conflicts is left behind, the new millenium **is being** greeted with fresh hope for conciliation, cooperation and common prosperity.

(22) 지금 그 일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나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I'm **calling** to find out how far along you are with the work.



- (23) 그동안 ASEM이 추진해온 아시아-유럽 간 ‘디지털 실크로드’의 완성은 이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ASEM has been pushing another Eurasian link in the form of a “Digital Silk Road,” which **is nearing** completion.

그런데 (24~26)에서처럼 영어의 현재 진행형에 대응된 한국어는 ‘-게 되었다’, ‘-어 지었다’ 구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성 형식은 앞서 영어의 비과거 형식(3.2.5., 3.2.6.)에 대응된 바 있다. (24~26)에서 ‘-게 되었다’, ‘-어 지었다’는 ‘이제’, ‘현재’의 뜻에 힘입어 이전과 달리 변화된 상태의 뜻을 갖고, 영어는 변화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아마도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상황에서 ‘-게 되다’, ‘-어 지다’를 영어로 바꾼다고 할 때 적합한 대응 형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일 것 같다. 역으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be ~ing’는 ‘~고 있다’, ‘~어졌다’로 번역하면 되기 때문이다.

- (24)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의 문명은 하천 문명, 연안 문명, 그리고 대서양 문명을 거쳐서 이제 태평양 문명 시대를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long rivers, coasts and the Atlantic rim, the world **is now anticipating** the age of Pacific civilization.

- (25) 이를 위해 현재 미군 기지가 있는 부지의 거의 절반을 한국 정부측에 반환하게 될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To do so, we **are implementing** a Land Partnership Plan, which will return to the Korean government almost half the land that our bases now occupy.

- (26) 이제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I’m feeling** much better now.

### 3.2.9. ‘-었-’의 과거-비과거 분할 기능과 구성 패턴

‘-었-’은 영어의 시상 형식과 이를 포함한 우연적 구성에 대응되면서 다양한

표지 형식만큼 다양한 의미적 기능을 했다. <표 2-1>는 영어에서 과거와 비과거를 가르는 시점을 present perfect와 present의 경계로 볼 때 한국어 대응을 볼 수 있게 한다.

<표 2-1> '-었-'의 영어 시점 대응 분포표: 과거-비과거 분할

	p a s t m o d a l	p a s t p e r f e c t	p a s t	p r o g r e s s i v e	p a s t	p e r f e c t	p r e s e n t	p r e s e n t	p r o g r e s s i v e	p r e s e n t	p r e s e n t m o d a l	f u t u r e	f u t u r e m o d a l	n o n e		
-었-	9	6	141	6	57	47	8	3	0	3	2					282

'-었-'은 분명히 영어로 과거 시점으로 사태와 양태를 표현하는 기능에 치중해 있고, 비과거 형식인 현재형(present), 현재진행형(present progressive), 현재형 양태(present modal), 미래형 양태(future modal) 형식에 대응될 때는 해당 시점에서의 상태 변화에 관련된 기능을 함을 보았다.

형식적 구성 면에서 볼 때, 영어의 대응 형식이 과거형 양태에서부터 과거/현재 진행형에 이르기까지 'would like/love to~', 'be ~ing' 등의 우언적 구성을 보이듯이 한국어에서도 '-었으면 ~', '-던 중이었-', '-고 있었-', '-르 수 있게 되었-', '-어 지었-', '-어 되었-'과 같은 우언적 구성을 보였다. 즉, '-었-'이 단독으로 영어의 양태 조동사와 진행형에 대응되기보다, 영어 과거 양태 조동사나 진행형이 두 단어 이상의 우언적 구성이듯이 한국어도 우언적 구성 형식을 띤다.

### 3.3. '-겠, -르 것'과 영어 시점 표지의 대조

이제 미래 표지 '-겠-', '-르 것'이 어떻게 영어의 단순 미래, 현재형, 과거

조동사 구성 형식에 대응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미래 표지가 가진 의미 기능을 언어 대조를 통해 구해 보자.

### 3.3.1. 미래 (future)

‘-겠-’, ‘-르 것’은 영어의 단순 미래 표지에 가장 많이 대응되었다. (27~30)에서처럼 ‘-겠-’, ‘-르 것’은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31~33)에서처럼 미래 일에 대한 추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는 대화 상황에서 쓰인 표현으로 ‘같습니다’와 공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32)에서도 ‘be going to’는 거의 정해진 미래의 일을 표현하고 여기에 화자(I)와 ‘think’라는 동사가 쓰인 것으로 보아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고, (33)에서도 ‘I’ll have to ~’로 보아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또, (33)의 한국어 문장은 ‘~ 재테크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어요’로 바꾸어도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겠-’은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기능에 가장 충실하고 미래 일에 대한 추정의 기능도 한다고 할 수 있다.

(27)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정부패의 척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And as I have already stated, I **will** do my utmost to root out corruption.

(28) 생산 능력을 확인해보고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check the production capacity.

(29) 우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미군 두 명을 기소하여 곧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In an important step which underscores the seriousness with which we are treating this incident, the soldiers involved **will** soon face a court martial on serious charges.

(30) 이제 ‘철의 실크로드’까지 완성되면, 아시아와 유럽은 하나의 협력 공동체를 향하여 크게 진전하게 **될 것**입니다.

When the “Iron Silk Road” is completed, Europe and Asia **will** have taken a giant step toward formation of a Eurasian cooperative community.

- (31)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어렵**겠**어요.  
Tomorrow **will** be even worse than today.
- (32) 내가 오늘 강의에 빠지게 **될 것** 같아.  
I think **I'm going** to miss the lecture today.
- (33) 이제 결혼을 하였으니 재테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Now that I'm married, **I'll** have to concern myself with investments.

**3.3.2. 현재형 (present & present modal)**

‘-겠-’, ‘-리 것’은 영어에 ‘hope, expect, let me ~, must, may, can’ 등 양태적 뜻이 있는 여러 표현 형식에 대응되면서((34)~(41)) 희망, 기대, 바람, 다짐, 허락을 표현하였다. 이때의 ‘-겠-’, ‘-리 것’이 곧바로 ‘hope, wish,..’ 등의 동사에 대응되는 것이라기보다 ‘좋다’나 ‘같다’와 같은 어휘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양태적 뜻을 갖게 하는 것은 ‘-겠-’, ‘-리 것’에 의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 (34) 곧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 (35) 지금 비가 안왔으면 **좋겠**어요.  
I **wish** it wasn't raining now.
- (36)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좋겠**어요.  
I **think** you've had enough.
- (37) 이제 미북 대화의 핵심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et me** briefly review the key aims of our talks with the North.
- (38) 오늘 20세기의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우리는 굳게 다짐해야**겠**습니다.  
On this, the last Liberation Day of the 20th century, we **must** renew our resolve.

(39) 내일 밤에 빈 방이 **날 것** 같습니까?

Do you **expect** any openings tomorrow night?

(40) 지금 좀 주시**겠습니까**?

**May** I have it now?

(41) 글쎄요, 지금 주문을 하시면 12월에 선적이 되**겠**는데요.

Well, if you place an order now, the shipment **can** be made in December.

### 3.3.3. 과거형 양태 (past modal)

또 ‘-겠-’, ‘-르 것’은 (42-46)에서처럼 ‘would’, ‘should’, ‘could’ 등 대표적인 과거형 양태 동사 형식에 대응되면서 계획과 추정, 검양의 양태 기능을 함을 보인다.

(42)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 **would** now like to discuss the relations with North Korea.

(43) 저 지금 무슨 일을 좀 하던 중인데 15분 후면 끝**날 것** 같아요.

Well, I'm doing something now, but I **should** finish in fifteen minutes.

(44)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자 관련 용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을 꼽는다면 역시 ‘문자’가 **될 것**이다.

If we count the most basic one among the currently used terms related to the writing system, the term muncha(letter) **could be** listed first.

(45) 내 생각에는 지금 새 차를 사**야 할 것** 같아.

I think we **should** buy a new car now.

(46) 곧장 호텔로 가지**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go straight to your Hotel?

(42)의 한국어 문장은 (42')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이제' 때문에 곧 일어날 일에 대해 표현하면서 '-었으면'이 더 강한 겸양의 뜻을 더한다. 이는 영어에서 과거형 조동사가 쓰였을 때 양태 기능이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46)의 영어 문장이 (46')의 영어 문장에서와 같이 과거형 조동사가 쓰이지 않게 되면 겸양의 뜻이 사라지며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도 '-겠-'이 쓰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영어 의문문이 한국어에 의문문으로 대응될 때는 '-겠-'이 쓰이고, 평서문에 대응될 때는 '-었으면'으로 대응되는 것이 조금 더 그 원의미에 가까운 것 같다. 다시 말해, '-었-'이 '-으'과 결합하면, '-겠-'이 가진 겸양의 양태보다 더 강한 뜻을 표현하며, 영어의 의문문 겸양에는 '-겠-'이, 평서문 겸양에는 '-었으면'이 쓰인다.

(42')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46') 곧장 호텔로 가십니까?

Do you like to go straight to your hotel?

Do you go straight to your hotel?

요컨대, 영어 양태는 의지, 추정, 의무, 겸양 등을 표현하는 과거형 양태 조동사로 표현이 됨에 비해 한국어는 '-었으면 ~'으로 쓰이는 '-었-'(3.2.4)과 '-겠-', '-르 것'이 그 기능을 나눠 표현한다. 다만, '-겠-'보다 '-르 것'이 의지나 겸양보다는 조금 더 추정이나 확신을 표현한다.

### 3.3.4. '-겠-', '-르 것'의 과거-비과거 분할 기능과 분포 차이

'-겠-', '-르 것'은 'will', 'can', 'must', 'may', 'be going to~', 'would like to~', 'should', 'expect', 'think' 등 단순 시제, 우연적 구성, 어휘 등 다양한 표현 형식에 대응되었다. '-었-'이 영어의 시제 형식을 포함한 우연적 구성의 문법적 형식에 대응되었다면, '-겠-'은 어휘 영역에까지 걸쳐 있다. 여기에서도 <표 2-2>에서 과거와 비과거를 가르는 시점을 present perfect와 present로 한다면, '-겠-', '-르 것'은 분명히 영어의 비과거 시점에 더 많이 대응되어 있다. 무엇보다 '-겠-', '-르

것'은 사건을 미래 사태로서 인식하는 기능과 추정, 의지, 바람의 양태적 기능을 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어휘 hope, expect 등에 대해 '좋겠다', '-르 것 같다'로 어휘가 가진 양태적 뜻을 더 잘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영어의 과거 시점 형식인 과거형 양태(past modal)에 대응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리고 이때 '-겠-', '-르 것'이 문법적 지위가 다른 각각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 구분은 모호한 때가 많고, 영어의 시점 형식에 대응되는 것도 전체적인 분포 대비 두 경우가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2> '-겠-', '-르 것'의 영어 시점 대응 분포표: 과거-비과거 분할

	past modal	past perfect	past	past progressive	present progressive	present perfect	present	present modal	future	future modal	none	complementiser	
겠	20	0	2	0	0	0	17	16	34	0	2	0	91
르것	5	0	1	0	0	0	5	6	21	0	2	1	41

'-있-'과는 달리 미래 표지는 '-겠-'과 '-르 것' 사이에 의미적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염재일(2005)에서 추정의 의미를 갖는 '-겠-'과 '-르 것'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결론적으로 화맥 조건에 의해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을 말하였다. <표 2-2>의 빈도 분포를 보더라도 '-르 것'보다 '-겠-'의 용례 수가 많았기 때문에 '-르 것'의 기능을 '-겠-'에 대비하여 명확히 구분지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영어 대응 양상(27-46)을 볼 때 '-겠-'이 행위 양태에 더 가까워 보이고 '-르 것'은 인식 양태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를 서법의 논의로 확장하여, 서실법(realis)이 상황을 실현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서상법(irrealis)이 상황을 순전히 사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면5), 전자는 사실 인식 양태로 실현될 것이고 후자는 미래 시점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는 ‘것’으로 실현될 것이고, 후자는 ‘-겠.’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47-48)을 보면 여전히 그 경계가 모호하고 ‘~ 것 같다’, ‘모르겠어’에서처럼 같이 쓰인 어휘의 의미에 달려 있다.

(47) 내일 그 영화 보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I'm **not sure** if I can make the movie tomorrow.

(48) 뿐만 아니라 ...,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이 증대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음에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Furthermore, we **must** realize a new awareness that it is now tim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accept its increasing global responsibility ...

#### 4. 끝맺는 말

과거-비과거 혹은 과거-현재-미래의 분할 시점이 언어적 보편성을 드러내는 범주라면, ‘-었-’, ‘-겠-’, ‘-ㄹ 것’, ‘-ed’, ‘-ing’, ‘will’ 등은 개별 언어적 특성을 드러내는 언어 표지이다. 이 글은 언어적 보편성과 개별성을 보이는 연구로서, 세종 한영 병렬 말뭉치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과거-비과거 분할 시점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영어와 같은 뜻을 표현하는 한국어 시점 표지의 ‘-었-’, ‘-겠-’, ‘-ㄹ 것’의 주요 기능을 살폈다. ‘-었-’과 ‘-었-’을 포함한 우언적 구성의 일정 패턴이 영어의 현재 완료, 과거 진행형, 과거형 양태 동사와 이를 포함한 우언적 구성의 패턴 등에 대응되면서, 과거 사태와 상태 변화 완료, 겸양의 양태를 표현함을 보았고, ‘-겠-’, ‘-ㄹ 것’은 영어의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표지와 어휘 형태에 대응되면서 화자의 의지, 추정, 겸양의 뜻을 표현함을 보았다.

‘-었-’은 과거 표지이자 완료 표지이다. 이는 영어의 다양한 시제 형식, 상형식에 대응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특히 영어의 단순 과거에 대응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현재 완료에 대응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한국어



의 과거 표지 ‘-었-’이 영어의 과거 분할 시점 기능과도 가장 일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에 ‘have+pp’의 우연적 구성의 현재완료가 우리말에도 보조 용언 연결 구성에 과거 표지가 결합한 우연적 구성인 ‘-게 되었-’, ‘-어 -지었-’ 등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뜻을 표현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영어의 과거 조동사 양태 ‘would like to’에 한국어의 ‘-었으면’이 대응되는 양상을 보았고, 영어의 과거 진행형 ‘was/were going ~’에 한국어의 ‘-고 있었-’, ‘-던 중이었-’ 등의 진행형을 뜻하는 ‘-고 있-’, ‘-니 중이-’에 ‘-었-’이 결합한 우연적 구성이 대응되는 양상도 보았다. 또 영어의 대과거에는 ‘-었-’의 중첩 형식인 ‘-었었-’이나 과거성 시간 부사 ‘이미’와 ‘-었-’이 같이 쓰여 대응되는 양상도 보였다.

‘-겠-’, ‘-르 것’은 미래 표지이자 양태 표지이다. 이는 영어의 미래 형식 ‘will’, ‘be going to’ 등에도 대응되지만, ‘must’, ‘should’, ‘may’, ‘might’, ‘can’, ‘could’, ‘would’ 등의 현재나 과거 형식의 양태 표지에 대응되기도 하였으며, 추정이나 가능성을 표현하는 양태적 어휘 표현 ‘expect, hope, be sure, think’ 등에도 대응됨을 통해 드러난다. 한국어와 영어의 미래 형식 ‘-겠-’, ‘-르 것’, ‘will’ 등은 항상 화자의 확신, 믿음, 가능성 등의 양태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겠-’, ‘-르 것’이 영어의 단순 미래에 대응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미래의 뜻을 갖는 현재에 대응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한국어의 표지 ‘-겠-’와 ‘-르 것’이 영어 비과거 분할 시점의 기능에 가장 일치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병렬 말뭉치에서 같은 뜻을 표현하는 한국어 영어 대응 문장에서 과거 표지와 미래 표지와 시간성 부사가 쓰인 양상을 과거와 비과거의 분할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대조 분석을 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이 시제 연구 혹은 시점에 대한 연구로 한국어의 어느 한 표지에 중점을 두어 정밀하게 논의하거나 시제 체계 정립에 대한 연구가 목적이었다면, 이 글은 다른 두 언어에서 같은 뜻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과거와 미래 표지의 쓰임을 대조함으로써 과거와 비과거라는 보편적 분할 시점이 개별 언어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살핀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1), 한영병렬말뭉치 구축 지침.
- 김선희(2011), 시제 체계 대조를 통한 ‘-었-’의 교수 방안 연구 :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 불일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목정수(2015), 색다른 한국어 문법 강의: 씨줄과 날줄로 짠 한국어 문법소의 그물망. 한국문화사.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국어학총서 66, 국어학회.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 박진호(2016), “-있었-’의 단절과거 용법에 대한 재고찰”, 한글 311, 한글학회, 89-121.
- 송상현(2016), “한국어 과거시제 표지의 병렬 말뭉치 기반 분석”,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언어정보, 20, 75-104.
- 염재일(2005), “-겠’과 ‘-을 것’의 양태 비교 연구“. 한국언어정보학회, 언어와 정보 9권2호, 1-22
- 이기동(1990). 영어 양태동사의 의미연구. 성곡논총, 21, 1057-1122.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 조은경(2016), 시간 부사와 시제 표지의 공기에 관한 말뭉치 기반 시간 지향성 해석, 담화와 인지 23권 1호, 207-228.
- 조준형(2018), 병렬코퍼스와 텍스트어휘측정법, 언어정보 12, 85-109.
- 허용, 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 황은하(2017), 언어간 연구를 위한 대응어 주석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언어와 정보 21(2), 한국언어정보학회. 137-157.
- Botne, Robert(2012), “Remoteness Distinctions”, The Oxford Handbook of Tense and Aspect. (etd.) Robert I. Binnick.
- Comrie, B.(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 Ö.(1983), “Temporal distance: Remoteness distinctions in tense-aspect systems”. Linguistics, 21(1), 105-122.
- Halliday, M. A. K.(2004). Computational and Quantitative Studies: Volume 6. Webster, Jonathan J.(eds),. Bloomsbury Publishing.
- Lee, Hyo Sang,(2015), “Tense and Aspect” in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Lucian Brown and Jaehoon Yeon eds.), Wiley Blackwell.
- Lee, Ji-Hye; Kang, Mun-Koo.(2016), “Contrastive Research on Tense and Aspect in English Present Perfect and Korean Past Tense Affix ... - Centered on contextual time”, International Information Institute (Tokyo). Information 19(8B), 3377-3381.

- Danie, Michael(2013; 2nd edition). “Ch.3 linguistic typology and the study of language” In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Jae Jung Song(edited), Oxford university press. 43-68.
- Van der Auwera, J., Schalley, E. and Nuyts, J.(2005). “Epistemic possibility in a Slavonic parallel corpus - a pilot study”, in: HANSEN, BJØRN & KARLI K, PETR (eds.), *Modality in Slavonic Languages. New Perspectives*. München: Otto Sagner, 201-217.
- Cysouw, M., & Wälchli, B.(2007). “Parallel texts: using translational equivalents in linguistic typology”. *STUF-Sprachtypologieund Universalienforschung*, 60(2), 95-99.

조은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글로벌한국학 전공 조교수  
04107

전화 번호 : 02-705-4742

전자 우편 : jek.cl.nlp@daum.net

원고 접수일 : 2019. 5. 4.

원고 수정일 : 2019. 6. 14.

게재 확정일 : 2019. 6. 19.